

해남·영광·영암·완도 '차세대 재생력'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발표

합계출산율 높아 인구 자연증가 가능성 전국 최고 수준

코로나19 장기화 귀농·귀촌 인구 증가... 대책 마련 필요

5년 새 평균 4000명의 인구가 줄어든 해남·영광·영암·완도가 인구 자연증가 가능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결혼한 가구 중에서 출산 가능성(합계출산율)이 높았던 곳으로, 농촌지역의 재가 가능성을 방증한 연구로 풀이된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이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한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김정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 사회혁신의 열쇳말: 사람, 일자리,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한 '차세대 재생력 지수'를 소개했다.

김 위원은 '차세대 재생력 지수'가 높은, 즉 재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 15개 시·군에 해남, 영광, 영암, 완도 등 전남 4곳이 포함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상위 15곳에는 강서구·기장군(부산), 예천군·봉화군(경북), 세종시, 순창군·진안군(전북), 달성군(대구), 거제시(경남), 김포시(경기), 계룡시(충남)가 이름을 올렸다.

재생력 지수는 이는 인구소멸과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 먼저 도입된 개념으로, 해당지역의 25-39세 인구의 3분의 1을 분모로 놓고 0-4세 인구를 분자로 뒤

? 차세대 재생력 지수
0-4세 영유아들이 성인이 되는 약 20년 후 해당지역 인구의 자연증가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 현재 젊은층 비율을 반영한 '지방소멸 지수'의 기본적인 한계를 보완한다.

백분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즉 현재 시점에서 최근 5년 동안 결혼한 가구에서 몇 명을 출산했는지를 표현한 것이다.

반대로 재생력 지수가 낮은 지역에는 관악구·광진구·종로구·중구·금천구·용산구·강남구·강북구·동작구·영등포구·마포구 등 서울 11개구와 부산 중구·남구·동구·서구 등 4개구가 포함됐다.

김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재생력 지수가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오른 곳은 3.3%포인트 오른 세종시(82%) 뿐이었다.

전남지역은 2014년 74.5%에서 지난해 65.4%로 9%포인트 떨어졌지만 세종과 제주(67.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광주는 8.8%포인트 떨어진 57.6%로, 전국에서는 10번째, 8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울산(61.7%)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광역시·도 중 재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으로는 지수가 8.6%포인트 떨어진 서

■ 지방소멸·차세대재생력 지수 상위 15개 지역

	상위 15개 시·군·구	하위 15개 시·군·구
지방소멸 지수	〈소멸위험 낮은 곳〉 광산구(광주), 성산구(창원), 북구(대전), 유성구(대전), 화성시(경기), 오산시(경기), 구미시(경북), 시흥시(경기), 세종시, 연수구(인천), 수원시(경기), 서귀포시(제주), 천안시(충남), 안산시(경기), 광진구(서울)	〈소멸위험 높은 곳〉 고흥, 신안, 함평 의성군(경북), 군위군(경북), 합천군(경남), 남해군(경남), 청송군(경북), 영양군(경북), 연수구(인천), 봉화군(경북), 보성군(전남), 영덕군(경북), 산청군(경남), 서천군(충남)
차세대재생력 지수	〈재생가능성 높은 곳〉 해남, 영광, 영암, 완도	〈재생가능성 낮은 곳〉 관악구(서울), 중구(부산), 광진구(서울), 강서구(부산), 예천군(경북), 세종시, 순창군(전북), 기장군(부산), 달성군(대구), 거제시(경남), 진안군(전북), 김포시(경기), 계룡시(충남), 봉화군(경북)

(자료: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울(40.6%)이 쪼뻤다.

재생력 지수 하위권에는 부산(50.9%), 인천(52.7%), 대전(54.6%), 대구(55.1%)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이름을 올렸다.

지수 상위권에 들어간 해남(84.8%), 영광(76.5%), 영암(75.6%), 완도(75.5%)는 전국 평균 지수(54.3%)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들 지역이 상위권에 든 데는 높은 합계출산율과 연관이 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평균 자녀 수)이 가장 높은 곳은 2.54명을 기록한 영광군이었다.

해남은(1.89명)은 지난 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완도(1.57명), 영암(1.54명)도 전국 평균 출산율(0.92명)을 크게 웃돌았다. 고령화율이 낮은 서울시 출산율이 0.72에 불과한 것과 대조됐고, 세종시(1.47명) 보다도 높았다.

김 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고령화뿐만 가지고 지역의 인구학적 미래를 예상할 때, 그 예상은 실제를 크게 빗나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며 "어차피 소멸하고 말 곳에 왜 공공재정을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각의 시각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IMF)로 인한 대량실업으로 지난 1998년 귀농 가구 수가 정점에 이르렀듯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귀농·귀촌 인구 증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잠재적 귀농·귀촌 수요가 상당 부분 현실화될 가능성에 기반해 관련 대책을 한국형 뉴딜(경제 부흥) 정책에서 반영할 필요성을 짚어야 한다"며 "대표적 사례인 영광군 모량면 '여민동락공동체'와 같이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무등산 수박 살리기 운동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오른쪽)은 지난 17일 광주 북구청에서 '무등산 수박 살리기 운동' 행사에 동참하며 무등산수박생산조합으로부터 총 1000만원 상당 무등산 수박을 구입했다. 광주은행은 매해 지역농가를 돕기 위해 무등산 수박을 구입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신보, 북구 청년 소상공인 3000만원 대출 보증 지원

광주 북구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이 광주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최대 3000만원 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을 길이 생겼다.

광주신보는 최근 광주시 북구, 광주은행과 '북구 청년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신보는 북구로부터 5000만

원 출연금을 받아 업체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총 6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신보는 100% 전액보증서로 지원하고, 보증료도 인화하는 등 청년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별보증을 지원받고 싶은 청년기업은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광주신보 6개 지점 또는 광주은행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I 투자 펀드'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기업 29일까지 모집

오는 2024년까지 광주 창업기업 500개를 키워내기 위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인공지능(AI) 투자 펀드' 투자유치 설명회(IR) 참여기업을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지난 7월 (주)티앤인인베스트먼트·COLOPL NEXT, Inc와 (주)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를 'AI 투자 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 이들 운용사에는 각 50억 원을 출자한다.

두 운용사는 각 500억 원 이상의 펀드 결성을 추진해왔으며, 한 곳은 548억 규모로 이미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고 사업단 측은 설명했다. 나머지 운용사도 다음 달 초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연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AI 투자펀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광주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금액의 2배수인 총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

이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168억 이상, 창업 7년 이상 중소·벤처기업에는 32억 안팎으로 투자금을 지원한다.

투자유치 설명회의 참여기업은 두 기관이 10개사씩 총 20개사를 모집·선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929회)

당첨번호	2등 번호숫자	
7 9 12 15 19 23	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308,035,157	16
2 5개숫자+ 번호숫자일치	38,330,701	91
3 5개 숫자일치	1,151,947	3,028
4 4개 숫자일치	50,000	140,880
5 3개 숫자일치	5,000	2,244,712

전남 농식품 명인 7인 기획전 광주신세계, 27일까지

(주)광주신세계는 '전남 농식품 명인 7인 기획전'을 오는 27일까지 1층 행사장에서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품 선물 비중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렸다.

이번 기획전 참여 명인은 '담양 전통 진장' 기순도, '장평 한과' 유영근 명인·안복자, '담양 떡갈비' 박규원, '진도 복령조화고' (떡) 김영숙, '함평 육포' 임화자, '순천 전통차' 신광수 명인 등이다. 이들은 총 36종의 선물 세트를 마련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8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 분판매를 진행하며 전국 배송은 27일까지, 광주권 배송은 2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0일 광주신세계 직원 1층 행사장에서 전남 농식품 명인 7인 기획전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